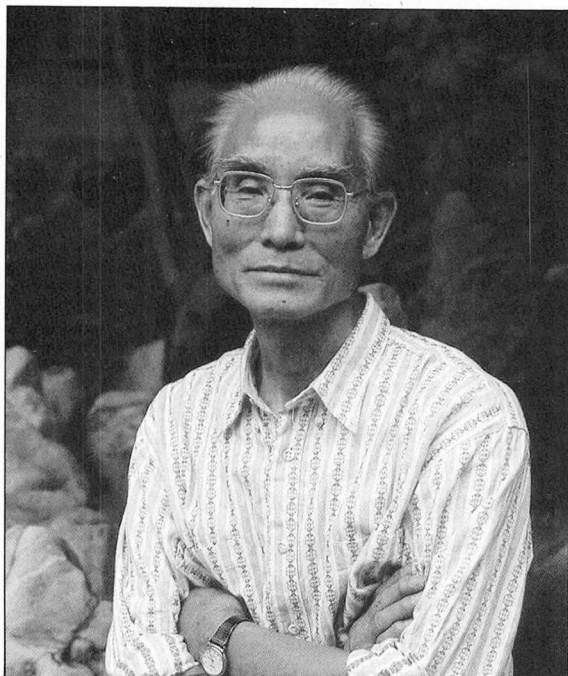


빙벽 앞에 선 50년, 그 '정신'의 힘

신작시집 「빙벽을 깬다」 상재한 시인 박두진씨



20여년에 걸친 수석에의 몰입은 그의 초기 시세계에서부터 일관되는 정신적 구도의지의 절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신작시집에서 보여주는 소재의 다양성과 '얼음'을 녹이는 '불'의 정신이 바로 그가 터득한 수석의 힘이다.

시인 박두진씨.

'산'이 있다. 그 산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 나와, 아슬아슬 흔들리며 자꾸 산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는 강물이 있다. 그리고 강물 밑바닥, 혹은 강어귀 어디메쯤 산을 닮았는지 사람을 닮았는지 알 수 없는 '水石'들이 숨어있다.

'우산'이 있다. 선친이 남겨준 이 이름으로 그는 20여년에 이르는 끈질긴 그 '돌과의 사랑'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산을 받쳐주는 어조사의 여백은 그에게, 그 사랑의 한순간 한순간을 시로 형상화해야만 하는 삶의 공간이다.

1939년 정지용의 추천으로 「文章」에 데뷔한

이래 올해로 詩歷 51년째를 맞는 혜산 박두진 선생(74, 추계예술대교수)은, 지난 주말에도 충주 부근으로 수석 채집을 다녀왔다. 그의 집안 곳곳은 그야말로 수석없이는 어떠한 배경으로도 사진에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가지각색의 수석으로 가득하다.

그가 '마리아'라 명명한 수석을 뒤로 하고 서체에 앉은 혜산은 조용히 말문을 연다.

"지나온 내 삶이나 나의 시생활에 대해, 지금에 와서 느끼는 특별한 감회는 없습니다. 유난히 기복이 심했던 우리 역사의 격변기를 체험한 것이, 생각하면 고생이기도 하지만 다만 당한 일도 아니고, 그때마다 '마음'으로

대응했다고나 할까요."

혜산은 최근 「빙벽을 깬다」(신원문화사)라는 신작시집을 냈다. 84년 완성된 「朴斗鎭全集」 이후 89년에 이르는 사이의 작품을 묶은 이번 시집에 대해, 문학평론가 류시욱씨는 "관념 일변도로 흐르지 않고 소재적 영역이 형이상과 형이하, 추상과 구상, 정신과 육체, 이상과 현실의 양극적 진폭 속에 다양하게 처리되어 있다"고 평한다.

막연하게 불가항력으로만 느껴지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장벽'의 의미를 차가운 얼음의 이미지로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동시에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제목에서부터, 그의 시를 읽는 독자는 그의 나이를 잊게 된다.

"인간의 불행한 숙명, 막다른, 온전한 민족의 결집을 방해하는 불순물들, 사회적 모순, 이러한 모든 것이 빙벽입니다. 빙벽과의 싸움은 구체적 대상과의 상대적 싸움이 아니라 극한상황과의 정신적 싸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힘이 아니라 커다란 '정신'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혜산의 이러한 정신적 구도의지는 조지훈, 박목월과 함께 한 '전설적인' 「靑鹿集」(46)을 비롯하여 그의 초기 시세계를 이루고 있는 감각적 자연의 묘사—「해」(49), 「午禱」(54)—를 통해, 때로는 4.19 등을 통한 체화된 역사적식을 바탕으로 '인간세계' 속의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 보는 침잠된 모습—「거미와星座」(61), 「人間密林」(63)—으로, '아가'의 얼굴에서 '아기예수'의 심상을 향한 구도자의 모습—「高山植物」(73), 「使徒行傳」(7

3)—으로 변화하면서, 마침내 수석에 이른다.

현재 수백점의 수석을 소장하고 있는 그가 전국을 돌며 본격적으로 수석을 찾아나선 것은 69년경부터.

지금은 수몰되어 아쉽지만 한 남한강 단양, 영월, 충주와 금강이 그가 가장 즐겨 찾던 곳이었다. 요즈음은 문경, 점촌 등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水石行'을 뜻이 맞는 10여명의 교수, 문학평론가로 구성된 '近水會' 회원들과 격주로 어김없이 동행길에 나서는 혜산에게 수석은, 적어도 2~3여년의 시련을 견뎌낸 돌 속에서 나오는 정신의 힘을 보여준다.

"추상조각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형태와 의미를 읽어 내듯이, 수석을 통해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봅니다. 웅장함, 고독, 섬세함, 탄력 뿐 아니라 존재론적인 우주의 생성원리가 돌 그자체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思無邪의 경지에서 수석과 만나게 된다는 그는, 오히려 "시가 모자라서 못 쓸 지경"이라고 한다.

수석시 이전의 종교시의 타성과 상투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할 만큼 그의 시세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된 그의 수석 생활은 "시창작 자체의 소재배경으로서 너무 피상적이거나, 너무 소박한 자연에 대한 관념을 훨씬 초극·심화시켜준"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그러나 혜산이 단지 시를 쓰기 위해 돌을 찾은 것은 아니다. 사심을 숨긴 공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수석이었던

쟁기출판기획
쟁기출판사

136-011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가 35-19
전화 : 742-9045
763-6818
팩시밀리 : 742-9045

하루 3백명상대도... 生還者 드물어
빨래터서 흘러간 15세少女



(한국전쟁 일제 만행 사진전에서)

쟁기는 요즈음 이 한장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 봅니다. 진정한 이웃이라면 한마디 "통석의 님"보다 마음속의 뼈아픈 뉘우침이 더욱 소중하겠지요.

감춰진 悲史... "20만명 희생"

자서전·개인시집·수상록·회갑 및 고회기념집·동인지·사보

뉴스

세계각국의 일러스트레이션 한마당

제2회 국제그림동화 원화전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가 주최하는 제2회 국제그림동화원화전이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엿새동안 서울 롯데백화점 8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됐다.

“세계각국의 수준높은 그림동화원화를 한국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일러스트레이터를 자극하고 아울러 한국그림책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1988년 첫 전시회를 가진 이래 제2회째가 되는 이번 전시회는, 제1회 때에 비해 참가국 및 출판작가, 전시작품의 양과 질에 있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세계출판시장에서 어린이 그래픽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와 이태리를 비롯, 공산권 및 제3세계권까지 모두 14개국 86명의 대표적 일러스트레이션작품 198점이 선을 보였다.

특히 소련의 경우, 지난해 9월의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 당시 체결한 ‘한·소 출판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서’에 의한 첫 출판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며, 중국 작품의 경우도 한·일·중 3개국 출판계의 협력으로 출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품작가에 있어서도 국제아동도서출판평의회(IBBY)의 안텔상, 체코정부 주관의 브리티스라바국제그림책상(BIB), 라이프찌히 국제출판디자인상(LIB) 및 일본의 노마그림책콩쿨 등에서 수상한 작가들이 대거 참여, 그림책제작의 국제적 동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한편, 이번 전시회개최와 함께 동전시회에 출품된 작품 전체를 수록한 작품집도 웅진출판주식회사에서 간행됐다.



수많은 수석들 틈에는, 현재 대학로 한 화랑에서 전시회를 갖고 있는 아들 박영하씨의 그림이 곳곳에 걸려 있다. 또한 그의 손때 묻은 먹이며 베틀, 붓들이 병풍 뒤로 보이기도 한다. 3년전에 이사온 그 집에서 혜산은 물을 먹을수록 더욱 오묘한 색채와 질감을 보여주는 수석들에 물을 뿌리고, 기름먹인 헝겊으로 정성들여 닦아주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오랜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그러다가 기자에게 「가을 絶壁」을 읽어준다.

“저 / 절벽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 우주 공간 아득 층층 절벽이 절벽에 / 매달려 있다 / 어디에나 까맣게 / 절벽에 절벽이 매달려 있다... 절벽에는, / 절벽이 절망에 / 절망이 절벽에 / 파랗게 파랗게 매달려 있다.”

그의 시전집(汎潮社) 중 ‘水石戀歌’편에 실려있는 이 작품 속에서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들은 수석의 모습으로 나타난 가시면류관이기도 하고, 로마황제 네로이기도 하고, 베토벤의 얼굴, 파르테논신전의 기둥이기도 하다. 이번의 신작시집에서도 그는 계속 “어떻게 당신의 벽을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절벽에게’)라고 묻는다. 그러나 그동안 300여편의 수석시들을 써내면서 혜산은 이제 그 방법을 터득한 것 같다.

“하늘도 파랗게 얼었다... 사방 팔방 어디나 다, 얼음 절벽의 얼음이다... 아, 맨주먹, 맨주먹, / 나 혼자 맨주먹으로, 얼음 절벽을 깬다. ... 천지 우주 얼음 절벽에 꽃불지른다. / 만세 만세 우주 영원에 / 만세 불지른다.”(「빙벽을 깬다」) — 정소연 기자

때문이다.

“완전한 시의 자율성, 그 자체의 창조적 여유와 순수성에서만 돌을 대상화하는 수석시가 가능하다”는 신념은 그를 시적 성공도의 문턱을 떠나서, 가장 순수한 생의 내부를 지배하는 ‘관념’ 아닌 ‘정신’의 시를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러사람이 같이 수석채집을 다니다 보면, “선생이고 제자고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치뤄야만 하는 혜산은, 이제 웬만한 무게의 수석은 ‘등에 지고라도’ 다닐 정도로 단련되어 있다.

50년대 말 연세대 조교수로 출발, 우석대·이화여대·단국대를 거쳐 추계예술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꾸준한 강단에 서오고 있는 그는, 현재 자신의 집에서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도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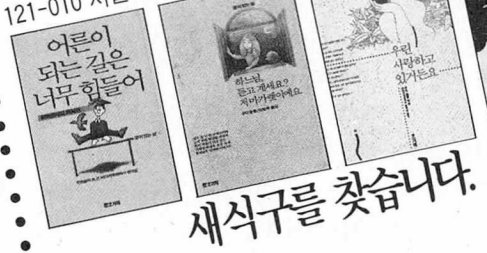
바다저작권회사

번역출판물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국제저작권 계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좋은 책·많이 읽히는 책을 찾고 계십니까?
바다저작권회사를 만나보십시오!

바다저작권회사를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출판사가 늘고 있습니다.

전화 : 312-9135, 362-3138
팩시밀리 : 393-9786

121-0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37-3 고려아카데미빌B/D 1702호



새식구를 찾습니다.

모집부분: 불어전공자/독어전공자
대우: 45만원/보너스 300% 이상 / 점심제공
(기준: 군복무를 마친 경력1년 정도의 남자)
보내주실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전학년 성적증명서
뽑는 방법: 서류심사→번역시험→면접
서류접수기한: 광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열흘
※편집·번역 경력이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